

연구 노트

북한의 농산물 유통실태와 통일 이후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방향

전 창 곤* 김 운 곤**

1. 머리말
2. 북한의 유통제도 및 정책
3. 북한의 유통체계
4. 유통체계의 붕괴와 문제점
5. 통일후 유통체계 확립방향

1. 머리말

북한에서는 상업활동의 기본목표를 상품의 공급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정책의 일관된 노선 역시 상품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유통이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통제되는 물자공급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 측면이 자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주민의 실물선호 경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상업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소유 형태가 전인민적 소유, 협동적 소유, 개인적 소유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상품을 공급하거나 공급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이며, 유통

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윤추구를 하는 자본주의적 상업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상업에서는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행위는 있으나 거래행위가 없으며, 판매원은 있으나 상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상업·유통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할당된 물량을 유통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행위일 뿐이었다. 즉 상품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가격 역시 국가가격제정위원회에서 수급과 관계없이 제정하여 왔다. 따라서 상업 및 유통의 역할도 주민들에 대한 소비재의 공급,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생산재의 상호교환, 기업소 상호간의 생산재의 교환 등에 치중되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유지, 이윤추구에 의한 부의 축적과 같은 것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품생산의 절대적 부족과 가격결정구조의 왜곡현상으로 공식적인 상품유통체계가 거의 마비되어 계

* 부연구위원

** 수석연구위원

획경제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적인 암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합법적인 시장으로 지정된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시장관계가 확대되는 장소인 동시에 일일시장¹과 함께 비허용품목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시장의 개장도 10일마다 열리던 것이 지금은 거의 상설화되었으며, 거래품목도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공산품까지 거래되고 있다. 암시장의 확산은 사회주의적 유통체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시장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북한의 유통체계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북한 유통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상업조직, 상품유통경로, 상업·유통형태, 상업단위, 상품가격 등을 포함한 상업유통체계와 농산물의 분배관리체계 및 암시장을 포함한 비공식적 유통실태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취합·정리하여 통일이후 북한 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확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의 유통제도 및 정책

2.1. 상업·유통제도의 변천²

북한 상업·유통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¹ 1984년 5월 북한 정무원의 지시에 의해 1969년에 설치된 농민시장외에 각 군별로 1~2개소가 설치된 상설시장으로서 그 후 시장수가 점차 증가하여 군당 3~4개소가 되었다. 일일시장에서는 주로 공산품 및 생활필수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농민시장과 함께 암거래의 장소가 되고 있다.

준비기, 개조기, 강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 상업의 준비기는 해방후부터 개인소유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사업이 실시된 1945년부터 1956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없애고 사회주의적 상업형태로의 개조를 위해 각종 법령과 조치들이 취해진 준비단계이다. 주요조치로는 1946년 8월 10일 공포된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하여 주요 산업시설과 상업자본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1947년 9월 이후 협업체제의 생산형태가 생겨나고, 1948년 11월 이후 실질적인 국영상업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1956년말부터 북한은 개인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사업과 농업의 협동화를 추진하였다.

사회주의상업 개조기(1957~1960)는 상업 부문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한 시기로서 개인상업이 국영상업이나 협동상업으로 전환되었다. 1957년 10월 소비협동조합의 도매기능을 인민봉사위원회 상업성으로 이전하고 도매상업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산하에 지구도매소와 출하도매소를 조직하였다. 1958년 8월 잔존하던 개인기업을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에는 국영백화점이 설치되고 농촌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모든 생필품이 판매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농촌소비조합상점이 농업협동조합상점으로 재편되어 통합상점체계를 구축하였다.

사회주의 상업의 강화·발전기(1961~1989)는 북한의 상업·유통제도가 중앙집권적이고

² 주로 홍성국의 「북한의 상업·유통」(1996)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계획적인 분배·공급체제로 확립되고 강화된 시기이다. 1964년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을 분리하여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토록 구분하였다. 그리고 협동농장이 관리·운영하던 상점 및 편의봉사망을 국영상업으로 전환시켜 단일 상업체계를 형성하였다. 1968년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강화를 위해 배달판매제, 이동판매제, 야간판매제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 농촌의 자연부락과 산간마을들에 위탁판매망을 조직하였다. 결국 1970년대에는 도매상업체계를 중앙 직속으로 일원화하고 주문제에 의한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분배체계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북한주민들의 생활 일용품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생산·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해 상품 품귀현상이 증대되어 암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상업의 재생성기 및 확산기로 볼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영상업형태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권내의 상품유통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제도적으로 공식화되고 있지 않지만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인상업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2.2. 상업·유통정책의 특성

북한의 상업정책은 가격기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와는 달리 중앙당국에 의해 장악되어 계획·통제되는 물자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북한 상업정책의 주요 내용은 철저한 주

문제 실시, 상업망의 합리적 배치, 사회급양사업³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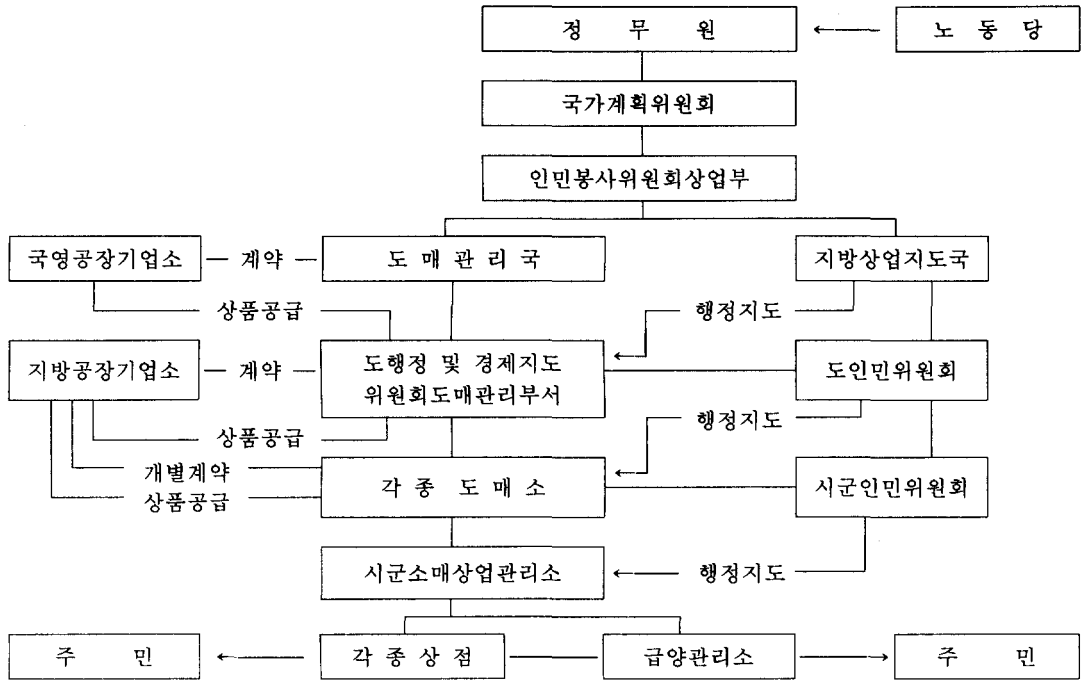
먼저 주문제의 실시란 상품의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 역시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의하여 모든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상품수요 파악 및 상품 확보, 상품배정과 공급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적인 상업근로자들의 부조리와 상업·유통계획의 실패로 상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업망의 합리적 배치는 각종 상업망을 인구별, 지역별로 국가가 합리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상품의 유통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창고나 상점망 등을 노동자지구, 농촌지역에도 배치토록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업품상점과 식료품상점, 종합상점과 전문상점, 직장상점 등 상업망을 지역별로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원활한 상업유통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급양사업의 개선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봉사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노력동원을 최대화시키려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지역에 종합 및 전문식당 및 관련상점들을 증설시키고 있으나 북한의 사회급양시설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집

³ 사회급양사업은 음식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업부문으로서 자본주의하에서의 식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소매업과 비슷하지만 대상이 음식물로서 소매상업과는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북한의 일반적 상업·유통 조직체계



자료: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1996.8.

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원자재의 공급이 어려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 북한의 유통체계

3.1. 상업·유통 조직체계⁴

북한에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분리하는 원칙에서 상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으로 분리하여 유통체계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당은 중앙으로부터 군단위까지 상업·유통의 행정기구와

관리기구를 분리·전문화함으로써 상업부와 도·시·군 상업행정 부서들의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관리도 분리되어 각각 중앙과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유통분야에 대한 계획은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상품유통계획과 수매 및 양정계획 등과 함께 입안·수립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은 인민봉사위원회 상업부에 하달되며, 도매관리국 및 지방상업지도국이 이를 기초로 하여 하부기관을 지도·통제하고 있다. 상업부의 도매관리국은 산하부서인 지구도매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의 통제·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그림 1).

⁴ 주로 홍성국의 「북한의 상업·유통」(1996)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3.2. 상품 유통경로 및 가격

3.2.1. 유통경로

북한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일반적인 유통형태는 크게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 협동단체기업소나 개인부업에서 생산된 재화의 유통, 암시장 거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은 다시 국영기업소와 국영기업소간 유통,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간 유통,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국영농장간 유통 등으로 구분된다. 국영기업소간의 유통은 주로 생산재가 주요대상이며,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 및 개별주민간에는 주로 중간재나 소비재가 유통되고 있다. 국영기업소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은 대부분 각종 도매소와 소매소를 포함한 국영상업기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는 직접거래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의 경우 국영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국영기업소나 협동단체기업소 및 개인에게 이동된다. 적용되는 가격

은 상품의 흐름에 따라 기업소도매가격, 국정소매가격, 산업도매가격, 생산원가 등이 적용되고 있다(표 1, 그림 2).

협동단체나 개인부업에서 생산된 재화의 유통에는 크게 농민시장이나 직매점 또는 국영유통기업소를 통하여 다른 협동단체기업소나 개인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형태와 국가수매기관을 통하여 국영기업소나 정권기관으로 유통되는 형태가 있다. 가격은 유통형태에 따라 소매가격, 수매가격, 국정소매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나 밀무역 등의 형태로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2.2. 상품가격

북한에서의 가격은 자원분배에 있어서 매개적 기능이 아니고 단지 경제계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공급경제 체제에서도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가격은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및 지방의 가격제정위원회에 의해 계획적·획일적으

표 1 생산단위별 상품이동 및 상업·유통체계

상품생산형태	상품이동형태	상품형태	유통주체	거래가격
국영기업소 생산재화 및 서비스	국영기업소 → ① 국영기업소 ③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 ④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 ⑤ 협동농장,국영농장	재화,서비스 재화 서비스 서비스	국영,직접거래 국영,직접거래 직접거래 직접거래	기업소도매가 국정소매가격 기업·산업도매 생산원가
협동단체기업소 및 개인부업 생산 재화	협동단체기업소 → ①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 ② 국영기업소 ③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	재화 재화 재화	농민시장,직매점 국가수매기관 국영유통기업소	소매가격 수매가격 국정소매가격
암거래	① 대내암거래 ② 국경암거래 ③ 밀무역	재화	직접거래	암시장가격 암시장가격 밀무역가격

로 책정되고 있으며, 일단 책정된 가격은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협동농장이나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등의 가격은 국가제정의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들 가격에는 일부 품목의 수매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이 있다.

상품가격은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정해지는데, 도매가격, 소매가격, 운임 및 요금, 수매가격으로 구분된다. 도매가격은 국영기업소 간에 거래되는 주로 생산수단에 대해 적용되는 계획적인 가격이며, 가격의 구성요소는 생산원가에 판매원가와 기업소의 이윤이 포함된 기업소 도매가격이다. 기업소 도매가격은 생산기업소들이 생산에 지출된 원가와 기업소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일정 이윤을 보장토록 결정되고 있다. 산업도매가격은 기업소 도매가격에 거래수익금을 더한 것으로 주로 국영농목장 농업생산물에 적용된다.

소매가격은 각종 소매상업망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소비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국정 소매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두 가지가 있다. 국정소매가격은 국가가 소비품을 각종 상업망을 통해 주민에게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서 동일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농민시장 가격은 농민시장에서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자본주의 시장가격형성과 비슷하지만 가격기준이 되는 것은 국정소매가격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수매가격은 농업생산물, 농촌부업의 생산물 및 기타 계획된 수매대상품을 수매할 때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되고 적용되는 가격이다. 특히 수매가격은 농업생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가격과 함께 농민의 소득수준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다. 농산물의 수매가격은 농민시

그림 2 북한의 상품유통경로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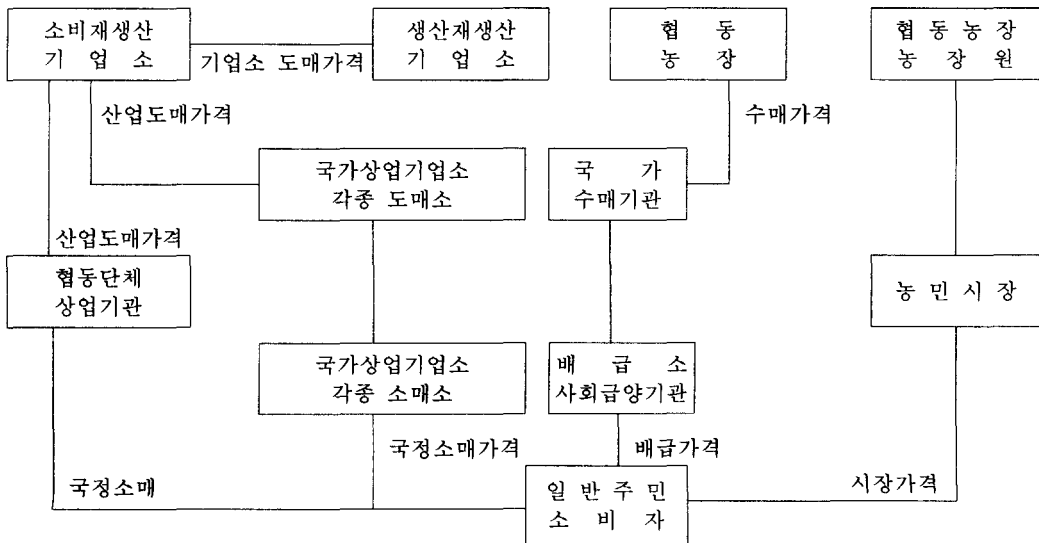


표 2 북한의 각종 상품가격형태와 내용

가격 형태	구 성 내 용	적 용 대 상
생산원가	원료·연료, 전력, 감가상각비, 노임, 기업소 관리비	· 국영기업소→협동농장, 국영농장제공 서비스가격에 적용
판매원가	생산원가 + 판매비	· 생산원가와 비슷한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생산원가를 적용함.
기업소 도매가격	판매원가 + 기업소 이윤	· 국영기업소→국영기업소 생산수단 · 정권기관→국영기업소 생산수단
산업도매가격	기업소도매가격 + 거래수익금	· 입산물(통나무) 및 국영농목장생산 농업 생산물의 국영기업소 이전가격
국정소매가격	산업도매가격 + 상업부가금	· 각종소매상업망→소비자 공급가격 ·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소비자 공급
수매가격	생산원가 + 생산자이윤	· 계획수매 : 수매가격(곡물, 축산물 등) · 자유수매 : 시장가격고려책정(청과)
요금·운임	생산원가 + 이윤	· 생산수단 : 원가+이윤 · 비생산수단 : 소매가격
농민시장가격	매매쌍방간 합의가격	· 국정소매가격이 기준이 됨 ·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격변동
무상공급		· 정권기관이 주민,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공급하는 서비스(국방 등)

장가격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어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2).

3.2.3. 상업형태 및 상업단위

1958년 8월 이후 개인소유의 상업형태가 폐지되었지만 상품의 소유형태가 전인민적 소유, 협동적 소유, 개인적 소유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형태도 국영상업, 협동단체 상업, 농민시장상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영상업은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가 직접 계획하고 관리·운영하는 형태로서 상품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수매품, 사회급양 등으로 전체 소매상품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상업은 상품유통단계에 따라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있고, 사회급양, 수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협동단체상업은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여 유통활동을 협동단체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1964년 대부분 협동단체상업이 국영상업으로 흡수·전환됨으로써 국영상점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일부 직매상점과 협동농장의 구판장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창설된 시장형태이다. 농민시장은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끼리 직접 매매하는 상업형태이다. 국영상업체계의 붕괴와 낮은 수매가격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매기피로 현재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형태이다. 농민시장의 가격은 국정가격이 아닌 수급에 의한 가격이다. 농민시장의 거래품목은

곡물류와 공산품 등 다양하며, 거래가격은 수매가격이나 국정가격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⁵ 또한 상점형태에는 일반주민들이 대내화폐(북한 원화)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상점과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점 즉 외화(외화와 바꾼 돈표)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상점인 외화상점이 있다.

한편 북한의 상업형태는 생산물의 경제적 기능과 유통조직에 따라 소비품상업, 사회급양, 수매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품상업은 상업유통 과정의 위치에 따라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도매상업은 생산과 소매상업의 중간고리로서 생산기업소의 상품을 소매상업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소매상업은 주민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매상업은 상품이 생산기업소로부터 도매상업기업소, 도매상업기업소에서 소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상호간의 유통이다. 소매상업은 도매상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한 소매상기업소가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공급하는 기능으로서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과 농민시장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사회급양은 음식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소비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부문이다.⁶ 그리고 수매는 협동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의 상품을 국가적 차원에

서 통제하고 관할하는 상업형태이며,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이 수매대상이 되고 있다. 수매는 의무수매, 자유수매, 자체수매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의무수매는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기본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형태이다.⁷

북한의 상업단위는 크게 도매소와 소매소로 구분될 수 있다. 도매소의 종류에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도 도매소, 지역도매소(2~3개시·군 상품공급 관할)가 있다. 그리고 특수도매소로서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 전문도매소가 있다. 중앙도매소는 평양소재 생산기업소의 중앙배정상품⁸을 인수·확보하여 출하도매소 또는 지구도매소로 이송하며, 도간의 상품유통사업을 담당하는 중앙관리품목을 취급한다. 도 도매소는 주로 대규모 생산기업소내에 설치하여 기업소제품의 지구도매소에 대한 공급기능과 수요자 도매소 출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도매소는 담당지역내 소매상업기업소에 상품을 공급하고, 지방생산기업소 제품의 출하를 담당하고 있다.

⁵ 북한의 소매상업은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를 감안하여 작성하는 소매상품유통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상품판매계획, 상품보장계획, 상업망포치계획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중 상품판매계획이 소매상품 유통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다.

⁷ 농산물의 수매는 크게 알곡수매와 곡물외의 일반식료품수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알곡수매는 군경제행정위원회 소속의 양정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양곡외의 농산물수매는 군경제행정위원회 소속의 식료수매종합상점(사업소)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수매한 농산물을 다시 판매하고 있다.

⁸ 중앙배정상품은 중앙정부의 공급체제로 중앙에서 각 도매소에 공급상품을 계획하여 배정하는 상품이다.

⁵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1996년 7월 기준 알곡의 가격은 벼의 경우 kg당 수매가격 22전, 알곡분배시 농장원에 대한 판매가격 50전, 농민시장 쌀 가격은 가을철 70~80원, 여름철 100~120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옥수수수 경우 협동농장원에 대한 분배가격은 45전, 농민시장가격 60~80원이며, 이에 비해 도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배급가격은 옥수수 15전, 입쌀 23전 수준이다.

소매소는 주민들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봉사하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도매소가 상품의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면 소매업소는 연간, 분기별 주문을 접수하여 배정된 상품을 적절히 공급한다. 북한의 소매상업망은 취급하는 상품부류, 상점규모, 위치 등에 따라 식료품상점과 공업품상점, 종합상점(백화점)과 전문상점(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등), 일반상점과 특제품 취급상점, 대규모 상점과 소규모 상점, 직장상점과 위탁상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백화점과 종합상점 등은 주요 도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리·동에는 직매점 또는 상점(매대) 등과 협동농장상점 등이 있다.

4. 유통체계의 붕괴와 문제점

4.1. 분배체계의 붕괴

북한에서의 상품 분배체계의 기본구조는 배급체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배급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유통기구를 통한 상품의 유통체계가 마비되고 있으며, 이에 대신하여 각종 암거래를 통한 거래와 물자조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⁹에

⁹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 중의 하나로서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 장려금 계획, 상급계획으로

따라 분배되고 있다. 먼저 노동자·사무원의 소득분배는 생활비를 기초로한 노동보수 분배방식에 따라 노동임금을 분배하고 있다. 임금수준은 대체로 연령, 성별에 무관하며, 동일근로조건에서는 동일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농장원에 대한 분배를 보면 분배원칙과 분배시기는 생활비를 기초로한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농장원들의 노력일을 기준으로하여 추수와 탈곡이 끝나는 매년 11월 이후 협동농장별로 결산분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결산분배사업은 ① 결산분배의 준비(수입과 지출의 확정, 노력일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재산실사 등), ② 결산서의 작성(생산계획 관련 지표, 수입분배 관련 지표, 생산 및 재정성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됨)과 비준(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한 후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비준받음), ③ 결산분배총화회의 진행(총화보고와 결산분배서 통과, 감사위원장의 결산기간중 감사위원회의 검열결과 보고), ④ 현물 및 현금분배의 절차로 진행된다.

협동농장의 현물총생산량과 현금총수입에서 국가납부의 생산적 지출(생산비, 원가)을 공제한 후 협동농장자체의 공동축적기금과 각자 1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의 기준은 농장원이 1년간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로 결정되는데 이는 매일 3~4명으로 구성된 노력평가조에 의해 매겨지는 노력공수의 총계로 결정된다. 노력공수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단위: g

구 분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 반 노 동 자	중노동자 군 인	병 자 노 약 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300
1974년 이후 전쟁비축미 월4일분 공제	260	433	6~7	695	240
1987년이후 절약미 10% 공제 (식량사정악화시)	234	390	547	624	234

자료: 통일원, 「북한개요」, 1995.

는 생산 또는 작업에 소요된 노력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협동농장의 경우 1인당 연간책임량은 350공수이다. 노력공수가 책정되면 협동농장에서 1년간 생산한 총량에서 사료, 종자, 비료대, 농기계임대료, 관계사용료 등 생산비와 협동농장 공동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0% 정도를 가지고 농장원들의 노력공수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다.

분배량의 결정에는 ① 기본적 분배, ② 작업우대반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③ 분조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 3가지가 있다. 작업반우대제는 작업반10에 일정한 생산목표를 주고 초과 생산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분조관리제하의 분배는 작업반보다 규모가 작은 분조에 일정량의 생산요소를 지급하고 생산량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개인몫의

분배량결정은 생산계획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분배에서 5~15%를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분배체계의 기본인 배급제도는 심각한 식량난과 물자난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붕괴직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통체계 역시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

4.2. 비공식유통 확대와 문제점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한다. 식량은 각 직장에서 발급되는 양권(양표: 출장용양권, 가정용양권)에 따라 리·동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되고 있다. 배급대상자의 신분, 직위, 지역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혼합비율이 다르며, 보통 혼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신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8에서 5: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표 3).

부식의 경우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은 공급카드로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된장외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식료품은 암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김

¹⁰ 작업반은 협동농장 생산조직의 기본형태이며, 작업반은 몇 개의 분조로 다시 나누어져 분조관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과수작업반, 농기구수리반 등으로 조직된다. 협동농장에는 규모에 따라 10~15개의 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은 생산반과 비생산반으로 나누어진다.

치,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점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있으나 공식상업망을 통해 상품거래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곡물과 생활필수품이 거래되는 주요 유통망은 평양 및 각 시도에 설치된 국영상점망이며, 협동농장 구판장 등 협동농장 상업망 및 농민시장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곡물을 제외한 잡화, 의류, 식료품, 공산품 등은 백화상점, 협동농장상점 등에서 주민들이 직접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의 공식적인 분배체계인 배급체계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유나 협동소유외의 개인적 또는 몇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농업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비공식 유통체계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상점, 협동상점 등 공식적인 유통체계의 기능이 상실되고, 농민시장과 일일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농촌에서 집단농업체계를 벗어난 경작형태가 증가하여 부족한 식량난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작형태는 크게 텃밭¹¹, 부업밭¹², 썰기밭¹³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텃밭과 부업밭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썰기밭은 비공식적 형태이다. 개인적으로 생산된 식량이 비공식적 유통체계를 통해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국영상점이나 협동상점 등 공식 상품유통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적인 암시장 형태의 물물거래가 확산됨으로써 북한의 공식적

인 가격체계가 붕괴되고 화폐의 가치척도 기준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비공식적인 유통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쌀장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사꾼과 중간상인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급가격과 시장가격이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임으로는 필요한 물품을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인 경제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적인 암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잠복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국영상업이나 협동단체상업 등 공식적인 유통체계를 대신하여 비공식적 암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현재 북한에서 합법적 시장인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시장관계가 확대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비허용품목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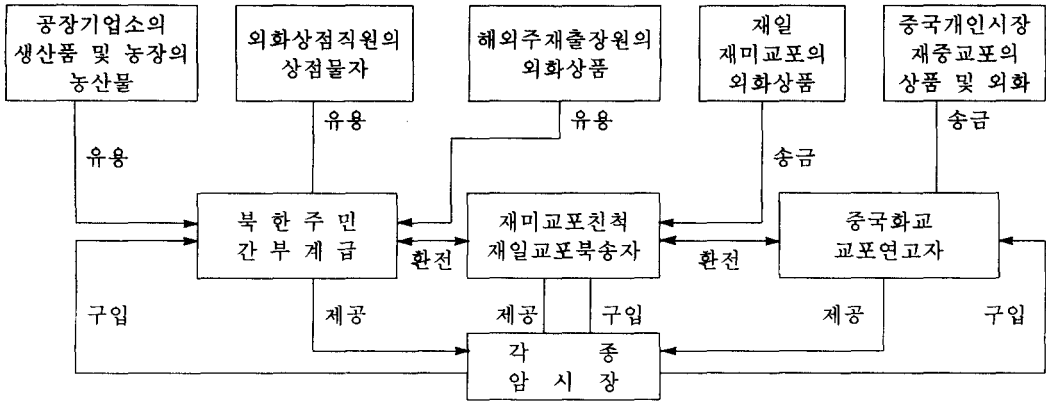
농민시장은 주로 개인텃밭 생산물 등 부업생산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양 등 대도시에는 구역(12개동)별로 1개소, 지방은 군단위별로 1개소가 있다. 농민시장 주요거래상품은 텃밭생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은 곡물과 생필

¹¹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농가당 30평 정도가 허용되고 있으며, 주요 작목은 채소류와 옥수수 등으로 토지이용률이 높고 단위당 생산성도 협동농장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농민시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¹² 작업반이나 직장 등 생산단위별로 척박한 땅을 활용해 작물을 경작하여 서로 나누어 갖는 형태의 밭으로 식량배급의 감소에 따라 부업밭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¹³ 비공식적인 경작지로서 개울가, 낮은 언덕 등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로서 생산성이 매우 높다.

그림 3 북한 암시장의 구조



자료: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1996.8.

품이 대부분이며, 가장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옥수수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이 구입하는 생필품의 80%와 옥수수의 60%를 암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시장을 중심으로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출처는 대체로 직장에서 몰래 유출한 것, 각 지방의 특산물로서 다른 지방에서 유입된 것, 밀수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된 것, 국영상점 및 외화상점에서의 구매품 등 네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3).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암거래의 유형은 도시상이 공산품을 가지고 농촌으로 와서 옥수수와 교환하는 형태이다.¹⁴ 암시장의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암시장이 바로

생존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시장에 참여하는 장사꾼은 첫째, 전문장사꾼 집단으로 전체인구의 3~4%에 해당되며, 이들은 주로 퇴직자, 노동불능자, 가정주부 등이 대부분이다. 둘째, 암거래에 참여하는 형태는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전체인구의 5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¹⁵ 북한에서 암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물건을 매매할 때 흥정을 붙이고 중개를 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거간꾼이 등장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 등 지역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전문장사꾼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적 장사꾼 사고방식인 유통마인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¹⁴ 암시장에서의 가격기준은 대체로 옥수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옥수수 1kg의 국정가격은 7~8전이나 암시장에서는 5~6원 정도이며, 겨울철에는 10~15원까지 상승하고 있다. 암시장가격은 대체로 국영상점의 10배 정도이며, 품목에 따라서는 50~100배까지 달하는 것도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¹⁵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핸드북」, 1997. 4.

5. 통일후 유통체계 확립방향

5.1. 통일형태의 가정¹⁶

통일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하여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노선은 크게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고 남한과의 화해·협력을 모색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북한이 남한을 인정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가능한 통일형태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 확보에 따른 남한과의 합의통일과 정치·경제의 불안심화에 따른 남한주도의 돌발통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남한과의 협력이나 화해없이 독자적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난국을 초래함으로써

가능한 통일형태는 자체붕괴에 의한 남한주도의 돌발통일과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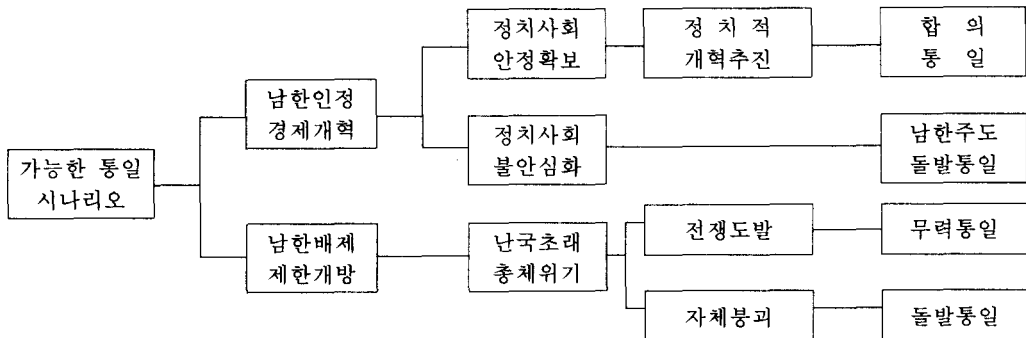
이러한 통일시나리오의 가정하에서 가능한 통일형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합의통일과 남한주도의 돌발통일 두 가지를 모두 가정하기로 한다. 특히 돌발통일의 경우 통일직후 혼란기의 긴급식량수송 및 배급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유통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 기간의 문제해결이 앞으로의 유통체계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유통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급변통일 직후의 혼란기와 통일후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누어 유통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하였다.

5.2. 통일직후 및 단기적 유통체계 확립방안

5.2.1. 통일직후 문제점과 대처방안

남한주도의 급변통일 직후 예상되는 유통

그림 4 통일 시나리오



자료: 김경량 외, 「남북한 체제통합에 대비한 농수산물유통정책의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1996. 11.

¹⁶ 주로 김성훈 외 「북한의 농업경제 현황과 전망」 (1996)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문제는 식량의 공급부족과 공식적인 유통체계의 마비현상이다. 즉 급변통일 직후 모든 식량의 거래가 중단되어 심각한 식량고갈 현상이 나타나며, 기존의 식량분배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시지역 근로자,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식량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곡물의 국가수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배급식량의 확보가 어려우며, 사회간접자본과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식량의 지역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간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상식량을 전국의 각 지역으로 빠른 시간내 수송하는데 필요한 도로여건 등 북한지역의 유통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고 수송수단의 절대적 부족으로 식량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간 곡물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곡물가격의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변통일 직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식량난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후 북한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전에 미리 식량확보, 식량수송, 식량배급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 비상식량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비상식량의 수송과 공급을 위해서는 통일직후 최단기간에 북한지역 식량의 재고파악과 함께 지역별, 계층별 비상식량 공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될 것이며, 동시에 식량을 긴급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뛰어난 육로수송수단이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후 비상식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수송체계¹⁷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한의 민간 수송차량을 투입시키는 것과 군 수송대의 투입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긴급식량수송과 수입곡물의 긴급수송을 위해서는 내륙지 수송거점지역 지정, 무역항과 거점지역간 연계 및 신속한 수송을 위한 긴급수송계획이 통일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상식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난, 변질 등의 방지를 위해 각 도의 내륙지 거점도시와 수입곡물이 하역되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임시가설의 창고시설을 긴급히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5.2.2. 단기적 유통체계 확립방안

통일직후의 긴급 식량공급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지역의 시장 및 유통체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표 4).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은 소비지시장과 산지시장의 활성화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의 암거래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암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민시장과 일일시장을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제도권시장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는 인구 규모와 현재의 시장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시

¹⁷ 현재 북한의 곡물수송은 민간용의 경우 행정위원회 산하 양정총국의 도시 양곡수송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군용의 경우 인민무력부 소속 후방총국 양식국 산하 수송대가 담당하고 있다.

표 4 통일후 북한지역 유통분야 단기과제

과 제	세 부 내 용	통일전	통 일 직 후	통일후 단기		
				1년	2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후 비상식량수급계획 수립 · 통일후 긴급식량 공급 · 긴급 유통시설 설치·보수 · 농업생산자재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확보계획 수립 · 식량수송·배급계획수립 · 자재공급계획 수립 · 식량재고 파악 · 식량공급우선순위결정 · 식량수송 및 배급 · 유통시설 파악 · 무역항, 거점도시, 협동농장 임시창고설치 · 생산자재 수송·공급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활성화 · 시장운영·관리제도의 확립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시장경제체제 적극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산지시장 설립 및 보수(상설, 정기) · 산지공판장건설 · 시장관리·운영규정 및 상인등록 · 농산물 가격통제 · 양곡수매 및 비축 · 시장경제교육 및 유통시설 사유화 추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장활동을 공개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농민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기능을 먼저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별 시장의 규모와 수는 인구규모 및 기존의 농민시장 등의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시장형태는 도시 지역의 경우 상설종합소매시장,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설 및 정기시장의 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증대되어야 될 것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상업관행의 유도과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한 각종 형태의 시장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거래지침, 시장시설의 사용, 상인등록, 조세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곡물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유통통제와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즉 쌀을 포함한 주곡과 상대적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배급에 의한 유통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농산물은 시장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통합이 완결되고 남북한의 시장체계가 동일하여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식량 및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초식량과 공급부족품에 대한

배급과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이원화되는 수급 및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와 함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적용과 유통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획경제와 분배 및 배급제도에 익숙한 유통체제를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경쟁적인 자본주의 시장질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통체제의 사유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통기구나 상업망의 사유화는 먼저 농민 시장에서 전환된 소비지의 상설시장이나 농촌의 정기시장 및 각종 소매상점에 대해 먼저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규모가 큰 도매유통망이나 국영상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질서와 유통체계를 효과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통중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생산자에게도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2.3. 중장기적 유통체계 확립방안

통일후 북한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일후 북한지역 농산물유통의 전국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일치될 수 있는 발전목표, 발전방향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별 종합계획에 의하여 유통단계별 각종 시장설립 및 관련 물류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설종류, 시설규모, 입지, 투자계획 및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시장, 물류시설 및 관련기관의 운영·관리지침도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유통산업 발전계획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표 5).

그리고 중장기 농산물유통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본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각종

표 5 유통체계확립을 위한 중장기 과제

주요 과제	주요 추진내용	추진기간
시장경제체제 도입·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시설의 사유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자율의식함양 및 시장경제교육 	중기계획
유통하부구조 구축 및 유통체계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개선 종합계획 수립 유통하부구조구축 및 시설설치 유통조성기능 강화 	중장기계획
농산물시장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안정화 정책 가격안정화 정책 가격자율화 계획 	중장기계획
유통부문 법적·제도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정비 제도적 개편 	중기계획

농산물 유통시설이 확충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소비지 시장건설은 시장수, 규모, 투자, 입지면에서 앞으로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유통산업 발전전략에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유통시설의 설치와 함께 유통조성기능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각종 유통조성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통시설의 설치는 유통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통조성기능의 확립 방안에는 표준규격화, 정보화, 교육, 금융 등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지역에서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확립되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메카니즘에 익숙하기까지는 시장의 불안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조치들은 유통관련 법적·제도적 개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후 유통관련 각종 법규 정비 및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토통일원. 1984. 「북한의 유통체계분석」.
- 김경량 외. 1996. 11. 「남북통일에 대비한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 김영운. 1997.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1호, 민족통일연구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6. 「북한의 농업경제 현황과 전망」.
- 민족통일연구원. 1996.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1983-93)」.
- 이태섭. 1996.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상반기호.
- 정필수. 1996.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체계 연구」, 「통일경제」, 6월호.
- 통계청. 1996. 11.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통일원. 1996. 「북한경제통계집」.
- . 1984. 12. 「북한의 농림수산정책 및 시설 현황」.
- . 1995. 12. 「북한개요」.
- 평화문제연구소. 1997. 「통일·북한 핸드북」.
- 한국개발연구원. 1993.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95. 「북한의 산업」.
- 홍성국. 1996. 8. 「북한의 상업·유통체계」, 공보처.